
차베스 집권 14년의 평가와 차베스 이후 차베스주의

김기현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

핵심어: 차베스, 차베스주의, 마두로, 볼리마르혁명, 베네수엘라

1. 서론

2013년 3월 5일 차베스가 암으로 인해 사망했다. 그가 1999년 2월 2일에 취임 했으니 사망까지 정확히 만 14년 1개월 3일 동안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것이다.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지배적이던 신자유주의 모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로 인해 차베스의 모델은 라틴아메리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의 가능성으로서 큰 관심을 끌어 모았다.

그러나 그의 모델에 대한 평가는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있다. 지지파들은 그의 집권기에 베네수엘라가 달성한 경제성장과 불평등의 감소와 같은 사회적 조건의 향상을 지적하면서 그의 모델이 성공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한편으로 차베스

모델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차베스 모델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차베스 정권 14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객관적 수치들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그러한 평가의 결과들을 소개한다.

또한 그러한 평가와 함께 이 글은 차베스 사후 차베스주의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차베스주의는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베스가 특유의 카리스마로 인해 이런 이질성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었다면 새 대통령 마두로도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차베스 이후 차베스주의의 향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차베스주의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이들 간의 상호견제를 통한 긴장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차베스 이후 차베스주의의 앞날을 진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차베스 14년의 평가

1) 정치 부문: 가치판단의 문제

차베스 정치 체제에 대한 논쟁은 주로 그것이 권위주의인가 아니면 민주주의의 심화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논쟁의 핵심은 그것이 권위적인가 민주적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권력집중을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차베스 체제는 분명 권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아무도 그것을 완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체제가 권위적이라고 해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정치

적 측면에서 차베스 체제에 대한 평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해서 일정 수준 권력집중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가치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당면 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즉 자유민주주의가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는 지역에서 차베스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투표 등으로 대중에게 직접 호소함으로써 다수의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권위적 형태의 ‘직접민주주의’ 혹은 ‘(정치적)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 행태에 대한 유혹은 언제든 존재한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 만족도는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Latinobarómetro 2011, 107).¹⁾

그러나 차베스 집권기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정부에 대한 지지도는 라틴아메리카 다른 나라 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Latinobarómetro 2011, 24). 이는 차베스가 라틴아메리카의 전통적 질서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의 권위주의 성향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가 거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지지도에는 정치적 요인 외에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차베스 정부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에는 그의 정치 행태가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차베스 체제는 분명 견제와 균형 기능의 약화, 대통령에의 권력 집중과 같은 전제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극화 전략으로 인해 지지도도 양분되었다. 이는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지평에서 차베스처럼 직접민

1) 앞으로 관련된 모든 구체적 수치는 김기현(2014) 참고.

주주의를 통해 급진적 개혁을 추구하는 것이 온건좌파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 개혁을 이루어가는 것보다 지지 획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비효과적임을 말해 준다.

2) 경제 부문: 비효율성

정치적 측면에서 차베스에 대한 평가는 관점이나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베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차베스 정부가 일부 전제적 성격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변혁의 절박함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의회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위해서라도 차베스의 권위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베스 정부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결국 경제적 사회적 부문의 성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차베스 정부의 성격이 석유산업의 국가통제강화, 경제주권 확립, 석유수익의 국민환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이든, 단순히 석유수익을 복지정책에 낭비하는 ‘페트로 포퓰리즘’이든, 그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여기서는 차베스 경제모델의 정의와 상관없이 단지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차베스 정부의 정책적 성과 그 자체만을 놓고 객관적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경제성장률 측면에 있어서 지금까지 차베스에 대한 그 어떤 비판자도 베네수엘라의 경제성장률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오히려 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해왔다. 그러나 차베스 집권 14년(1999-2012)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다른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의 같은 기간 성과와 비교해 보면 베네수엘라의 14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다른 라틴

아메리카 주요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CEPAL 2013, 52; CEPAL 2004, 144).

특히 베네수엘라가 유가상승으로 인해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큰 우발적 수익을 올렸음을 감안할 때 (CEPAL 2013, 59; The Economist 2013.05.09) 그러한 수준의 성장은 차베스 모델이 경제성장 측면에 있어서 분명 비효율적 측면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베네수엘라 경제는 한마디로 석유의존경제라고 할 수 있다. 차베스 정부 들어서도 그런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차베스 정부는 석유의존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프라 건설, 교육과 보건 투자, 자동차 산업과 같은 고기술 비석유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의 육성, 농업 발전, 국내시장의 통합 등 다양한 내재적 발전 프로젝트를 시도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Parenti 2005, 21).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 국내 민간투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베네수엘라 경제성장은 여전히 석유산업과 국제유가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결국 차베스 정부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석유의존경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다. 그리고 차베스 집권기 석유수출경제의 결과는 경제성장률 측면만을 놓고 볼 때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다.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우발적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집권기 베네수엘라의 성장률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게다가 성장률의 오르내림의 폭도 커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측면을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차베스 정부는 경제성장률 측면에서 결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고, 게다가 베네수엘라 경제의 운명이 여전히 유가변동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구조에도 변화를 주지 못했다.

경제에서 성장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물가안정이다. 차베스 정부 하

의 베네수엘라는 물가라는 측면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은 라틴아메리카 기준에서도 매우 높은 편이다.

차베스 정부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국가들 보다 높은 이유는 흔히 주장하듯이 과거 포퓰리즘 정부가 하던 것처럼 무분별하게 재정팽창정책을 적용했기 때문은 아니다. 천연자원 가격이 상승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재정수지는 칠레를 제외한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양호한 편이었다(CEPAL 2013, 76; CEPAL 2004, 162).

칠레를 제외한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대부분은 천연자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발적 수익을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데 사용했다. 그러나 그러한 지출 확대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고보다는 재정수지와 관련하여 엄격한 국제적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차베스 정부는 분명 무분별한 복지정책과 재정팽창정책을 적용했던 과거의 포퓰리즘과는 다르다.²⁾ 앞서 언급했듯이 재정수지 측면에 있어서 차베스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달리 상대적으로 건전한 재정을 유지했다(CEPAL 2007; CEPAL 2010; CEPAL 2013).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네수엘라의 평균 재정수지

2) 그런 의미에서 에드워즈는 차베스 정부의 성격을 ‘네오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네오 포퓰리즘은 과거 포퓰리즘과 달리 “건축재정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합리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걸 이해”한다. 또한 “전통적 포퓰리스트들은 대부분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잡거나 유지했다”면 “네오 포퓰리스트 정치지도자들은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 권력을 잡았다.” 한편 “네오포퓰리스트들은 특정 집단에게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재정적자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 통제와 규제를 늘리는 방식을 강조”한다. 그들은 환가래를 통제하고, 외국계 회사들을 국유화하며, 외국인 투자자들과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물가를 인위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수입관세를 인상하고, 수출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사업자를 괴롭힌다(에드워즈 2012, 274-277). 그에 따르면 차베스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불리는 것은 과거와 같은 과도한 복지와 재정적자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과 민간투자자에 대한 규제 강화 때문인 것이다.

적자는 GDP대비 4.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물론 1차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 수입 감소라는 위기의 순간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고 긴축을 단행해야 했겠지만 그것은 경기를 보다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심지어 미국까지도 긴축정책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두가 재정확대 정책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만이 높은 물가상승률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CEPAL 2013).

그 이유는 무엇일까? 베네수엘라의 경우 그 답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차베스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규제를 강화했다. 그럼으로 민간투자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빈곤층이 주로 사용하는 생필품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가격과 환율의 통제, 나아가 가용되지 않는 기업이나 토지와 같은 사유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은 베네수엘라에서 민간투자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로 인해 생필품 부족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생필품의 생산량 증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차베스 정부의 사회복지 증대로 인한 수요증가와 맞물려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따라서 이러한 공급 부족 현상은 베네수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을 잘 설명해 준다. 높은 인플레이션 또한 차베스 모델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경제 부문의 가장 핵심 수치인 성장률과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차베스 모델은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3) 사회 부문: 부분적 성과

차베스의 정치적 지지도와 그의 경제 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모델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지지를 받는 것은 무엇보다 차베스 모델이 사회부문에서 거둔 성과 때문이다. 특히 빈곤과 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차베스 정부의 성과는 높이 평가되고 있고, 미시오네스 프로젝트를 통한 교육과 보건에 있어서의 업적도 자주 언급된다.

먼저 사회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실업률을 살펴보면 차베스 집권 14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은 라틴아메리카 기준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CEPAL 2004, 161; CEPAL 2013, 68).

물론 차베스 정부는 2006년 이후 유가상승의 도움을 얻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집권 이후 계속 두 자릿수에 머물던 실업률을 한 자릿수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는 차베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실업률 감소 정책이 2006년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말해준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성과가 무분별한 재정팽창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차베스 정부가 비록 경제성장이나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라는 점에서는 분명 효과적이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유가하락 등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의 실업률이 가장 크게 증가한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차베스 정부가 미시오네스나 협동조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유도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우발적 수익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 실업률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빈곤율 감소에 있어서도 차베스 정부는 분명한 성과를 거두었다. 차베스 정부의 사회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근거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성과는 크게 두드러진다고 볼

수는 없다. 라틴아메리카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2000년대 급격한 유가상승 등의 요인을 감안한다면 베네수엘라에서 비록 차베스 정부가 없었더라도 그 정도의 성과는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2011년 빈곤층과 극빈층의 비중은 여전히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빈곤층 감소에 있어서 차베스 ‘21세기 사회주의’는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성과라는 것이 제한적이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탁월한 수준도 아니었다(CEPAL 2012, 65).

불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전 부문에 걸쳐 차베스 정부의 최대 업적이 바로 불평등의 감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의 감소야말로 명백히 차베스 ‘21세기 사회주의’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지니계수는 1999년에서 2011년 사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그 결과 현재 라틴아메리카 주요 18개국을 통틀어 지니계수가 0.300대로 내려간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이다. 따라서 불평등의 감소야말로 차베스 ‘21세기 사회주의’ 정책의 최대 성과로 평가될 만하다(CEPAL 2012, 67-70).

한편 문맹퇴치 프로젝트인 미시온 로빈손(Misión Robinson)과 대학교육 강화를 위한 미시온 수크레(Misión Sucre)를 중심으로 하는 차베스 정부의 교육정책은 부분적 성과만을 보여주었다. 먼저 문맹퇴치와 관련해 차베스 집권 시기 베네수엘라의 문해율이 다소 증가함으로써 이 부문에서 차베스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성과와 비교해 보면 차베스 정부의 성과가 크게 두드러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온건좌파 성격의 브라질 룰라정부와 중도우파 성격의 멕시코 폭스와 칼데론 정부가 문맹퇴치에 있어서 거둔 성과가 차베스 정부의 성과보다 오히려 더 크다(CEPAL 2012, 49-53).

하지만 교육 단계별 등록률 특히 대학 등록률이라는 부문에서 차베스 정부는 라틴아메리카의 그 어떤 정부도 따라올 수 없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베스 정

부는 교육, 특히 대학교육이 사회변혁의 기반이라는 인식 하에 2003년부터 미시온 수크레를 통해 대학교육을 강화했다. 특히 대학교육의 민주화라는 목표 하에 빈곤층의 대학교육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국에 걸쳐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대학(Universidad Bolivariana de Venezuela: UBV)을 비롯해 13개 대학을 신설하고, 대학교육을 무상화했으며, 입학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은 대부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결과 차베스 집권기에 베네수엘라의 대학 등록률 증가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베네수엘라는 2009년 기준으로 대학 등록률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쿠바, 한국, 핀란드, 미국,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에 이어 세계 8위에 올랐다(Banco Mundial, 2013). 대학 등록률 증가는 불평등 감소와 함께 차베스 정부 사회정책의 최대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항목과 달리 영유아사망률 지표로 살펴본 보건 항목에서 차베스 정부의 성과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Banco Mundial 2013). 물론 쿠바와의 협력을 통한 차베스 정부의 보건 부문 주요 사회정책인 미시온 바리오 아덴트로(Misión Barrio Adentro)의 성과를 단지 영유아사망률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지만 보건 부문의 핵심 지표인 영유아사망률의 성과로 미루어 보건대 다른 부문의 성과도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차베스 정부는 정치적으로 선거 제도를 통한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 그러나 권력 집중과 양극화 전략 등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인 견제와 균형, 대화와 타협의 원칙을 손상시킴으로써 차베스 정부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 정부들에 비해 정치적 지지율 확보라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보였다. 정치적 지지도 측면에서는 차베스와 같은 권위적 정치 행태보다는 브라질의 룰라나 칠레의 바첼레트와 같은 온건좌파의 대화와 타협에 기반을 둔 정치 행태가

보다 효과적이었음 알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차베스 정부는 가장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차베스 집권기 전체를 분석해 보면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엄청난 우발적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 평균 물가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나라는 베네수엘라뿐이다. 따라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경제의 가장 기본적 측면에서 차베스 정부의 성과는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차베스 정부는 무엇보다 사회적 부문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양한 항목 중 불평등 감소와 대학 등록률 면에서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어떤 국가들이 따라 올 수 없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빈곤율 감소, 일자리 창출, 문해율 감소, 그리고 영유아 사망률 감소 등의 지표에서 차베스 정부의 성과는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비해 크게 두드러진다고 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우발적 수익을 고려할 때 이 부문에서 그 정도의 성과는 차베스 정부의 '21세기 사회주의'와 같은 급진적 정책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었다.

3. 차베스 이후의 차베스주의

1) 차베스주의는 살아남을 것인가?

앞서 살펴본 대로 차베스주의는 경제적 사회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불평등의

감소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의는 여전히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쟁력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차베스주의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주의처럼 차베스 사후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전망이다 (The Economist 2013.05.09; Corrales y Hidalgo 2013).

물론 차베스주의는 다양한 사회세력들로 구성된 혼합체(régimen híbrido)의 산물로서 페론주의와 달리 아직까지 명확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현상만으로 볼 때 차베스주의 이데올로기는 대략 행정부에 권력집중, 경제에 있어서 국가 개입주의, 사회정책을 위한 공공지출 확대, 석유 수익의 분배정책에 활용, 민족주의와 지역통합 추구 등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Corrales y Hidalgo 2013, 78).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차베스주의자들이 말하는 ‘21세기 사회주의’이든 아니면 흔히 말하는 ‘(네오)포퓰리즘’이든 이름과 상관없이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지지 세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때 라틴아메리카 최고의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와 마찬가지로 석유로 인한 부를 일찍이 누려왔던 베네수엘라에서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지지를 얻어왔다. 따라서 차베스주의는 그의 부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차베스 사후 약화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2) 차베스주의의 이질성

차베스주의 내부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한다. 차베스주의를 주도하는 세력들로는 차베스 정권을 탄생시킨 군부, 차베스정부와 밀접히 연결된 신흥 부르주아 그룹, 급진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그룹이 있고, 차베스주의를 받쳐주는 사

회그룹으로는 조직노동자계급, 일부 중산층, 빈곤층이 있다. 이들은 각각의 정책 사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들 간의 내부적 갈등은 불가피하다.

예를 들어 차베스주의 정책방향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민간기업 수용의 문제이다. 민간기업의 수용은 차베스주의 내부의 급진파조차도 사전에 기획하지 않았던 처방이다. 그러나 야당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간 기업가들이 생필품 부족현상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수용과 같은 급진적 수단이 취해졌다. 어쨌든 대응적 차원에서 시작된 이러한 민간기업의 수용은 국가 기간산업의 국가통제강화와 함께 차베스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상징이 되었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수용은 차베스주의의 민족주의 반제국주의 수사와도 일치함으로써 민간기업의 수용 즉 국유화를 차베스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로 만들었다(Ellner 2013a, 66-70).

그러나 이런 민간기업의 수용 문제를 놓고 차베스주의자 내부에서 갈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조직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파들은 민간기업의 수용을 지속하는 것이 볼리바르 혁명이 정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를 적극 지지하지만, 한편으로 차베스주의 내부에는 수용이 가져올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우려하는 보다 신중한 온건파도 존재한다.

차베스주의의 급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차베스주의 내부에는 실제 온건파의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다.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온건파는 급격한 수용이나 과도한 노동자 복지, 그리고 비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에 반대한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베스주의 주도세력 중에는 군부와 기술 관료그룹이 있다. 차베스 정부 초기에 이들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한때 공산주의자였으나 후에 성공한 사업가로서 차베스 정부 초기 내무부장관을 맡았던 루이스 미킬레나(Luis Miquilena)와 퇴역 공군장교 출신으로 차베스 정부 초기 내무부장관과 외교부 장

관을 맡았던 루이스 알폰소 다빌라(Luis Alfonso Dávila)가 있다. 이들이 당 내부의 파워게임에서 밀려 차베스주의를 떠난 이후 온건파를 주도한 인물은 또 다른 퇴역 장교로서 1992년 차베스 쿠데타에 참여했던 디오스다도 카베요(Diosdado Cabello)이다. 그는 미란다주 주지사, 내무부장관, 부통령을 거쳐 현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군 인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군부를 통제하고 있다.

카베요 반대편의 급진파 세력으로는 노조운동에 있어서 국가 개입을 반대하는 노조 자치파들과 빈민가 거주자들로 구성된 지역사회협의회가 있다. 차베스 정부 내에서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는 싱크탱크인 미란다 국제센터(Centro Internacional Miranda)와 친차베스 온라인 출판업체인 아포레아(Aporrea)와 관련된 좌파 지식인 그룹이 있다. 이 그룹을 대표하는 인물로는 전 게릴라 출신으로 역시 국회의장을 지낸 페르난도 소토 로하스(Fernando Soto Rojas)가 있다. 대학교수 출신으로 경제부, 농업부 장관을 거쳐 행정부통령을 지낸 엘리아스 하우아(Elías Jaua)도 급진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급진파와 온건파의 분류가 단순히 군부와 기술 관료 그룹 대 좌파 지식인, 노조, 빈민층의 대결로 단순화될 수는 없다. 노조는 상대적으로 온건한 비자치파와 급진적인 자치파로 분열되어 있고, 군부 또한 모두 온건파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빈민가 중심의 지역사회협의회와 노조 사이에도 갈등이 존재한다.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구성의 내부적 갈등은 차베스주의 정책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 급진파는 정부가 온건파에 의해 장악됨으로써 '21세기 사회주의'로의 진전이 정체되는 것을 막아왔고, 온건파는 차베스주의가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인해 불건전한 재정 상태에 빠지고, 과도한 기업 국유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견제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차베스는 온건파와 급진파 인물을 적절하게 배치함으로써 양자 간에 균형을 유지해왔다. 물론 반대파의 적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

베스주의가 노조와 빈곤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급진과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다계급적이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질적인 동맹인 차베스주의 내부에 다양한 세력들 간의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Ellner 2013a, 80).

3) 마두로 급진적 노선의 한계

디오스다도 카베요가 군부와 신흥부르주아를 대변하는 온건파의 대표자라면 차베스에 이어 대통령이 된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는 급진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분류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카베요가 차베스의 후계자가 되지 못한 데에는 쿠바의 불신이 크게 작용했다고도 한다(Corrales y Hidalgo 2013, 77).

그러나 마두로는 알려진 바와 같이 급진파라고 할 수만은 없다. 버스운전기사 출신으로 노조지도가 된 마두로는 노조 내에서도 비교적 온건한 비자치파에 속한다. 그와 함께 비자치파 노동자를 대변하는 인물로는 여당인 베네수엘라통합사회주의당(Partido Socialista Unido de Venezuela: PSUV) 내 노동자 그룹인 사회주의노동자전선(Frente Socialista de Trabajadores)의 의장인 오스왈도 베라(Oswaldo Vera)가 있다. 보다 급진적인 자치파 노조에는 트로츠키 노조운동가인 스탈린 페레스 보르헤스(Stalin Pérez Borges)와 민간 부문 제약회사 노동자 단체장으로서 전국노동자연합(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³⁾의 핵심적 리더인 마르셀라 마스페로(Marcela Máspero) 등이 있다(Ellner 2013a, 71).

자치파 노조가 전위적 입장에서 차베스주의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을 리드하

3) UNT는 과거 지배정당인 AD와 연결된 반차베스 노동자 동맹 CIV(Confederación de Trabajadores de Venezuela)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2003년 차베스지지 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CIV로부터 이탈한 노동자들까지 규합해 현재 베네수엘라 최대의 노동자 조직으로 성장했다.

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업의 국유화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 비자치파 노조는 차베스주의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동맹을 형성하면서 실용적 노선을 택한다.

따라서 마두로는 차베스와 같이 급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용적 입장에서 차베스주의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 간에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마두로는 대통령 선거에서 힘들게 승리했다. 따라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서 빈곤층, 급진적 자치파 노조 등 사회그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또 선거 불복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야당의 강경한 도전에도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마두로 정부가 전반적으로 급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급진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따른다. 무엇보다 디오스다도 카베요로 대표되는 온건파의 견제가 존재한다.⁴⁾ 차베스와 달리 마두로는 정책 결정에 있어 군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마두로 정부는 사실상 ‘정치인과 군부의 연합 통치’(political-military command)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야당의 도전이 거세질 경우 군부의 정치개입이 강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The Economist 2013.05.11.).

베네수엘라의 군부는 석유산업과 정치에 이미 깊숙이 개입해있다. 2013년 1월 현재 내각에 3명의 군 출신이 있으며, 23개 주지사 중 11개를 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군부 내 실세 그룹은 카베요가 소속된 군사아카데미 1983년 학번들이다. 이들은 차베스가 설립한 볼리바르혁명운동-200(Movimiento Bolivariano Revolucionario 200: MBR-200)의 핵심멤버들로서

4) 한 급진파 차베스주의자와 쿠바 비밀정보 요원 사이의 대화는 마두로와 카베요 사이의 긴장관계를 잘 보여준다. 이 대화는 카베요는 마두로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해 마두로는 카베요와 차베스주의 엘리트관료들의 부패관련 혐의를 포착함으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Silva y Palacios 2013).

1992년 차베스 쿠데타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후에 차베스주의의 핵심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친차베스적이며, 볼리바르혁명에 충실하고, 입헌주의를 고수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정책들에 있어서는 일부 사회주의적 확신을 가진 급진파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보다 온건한 실용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입헌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치적 무질서에 대해서는 레드라인을 두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Isacson 2013).

실용적 온건과 군부의 견제로 인한 마두로 정부의 급진적 정책의 한계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난다. 생필품 부족과 물가상승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마두로 정부는 우선 ‘부도덕한 기업인’들과의 ‘경제 전쟁’을 선언하고, 행정명령을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제품의 가격을 한 달 전 가격으로 내리면서 그를 이행하지 않는 상점 주인들을 처벌하는 강경 처방을 내렸다. 나아가 마두로는 다른 제품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포하면서 기업인들의 그러한 부도덕한 일이 지속된다면 언제까지 그러한 기업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수용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The Economist 2013.11.16.).

그러나 마두로의 이러한 급진적 행보는 PSUV 당 지도부의 온건한 실용주의 세력의 견제에 직면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그에 따라 마두로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실현에 있어서 이러한 한계에 대한 당내 좌파세력과 급진적 사회그룹들의 불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두로 정부는 당내 부패척결을 내세웠다. 마두로는 부패에 성역은 없다고 선언하면서 철광석개발산업(Ferrominera), 외환통제기관(Cadivi), 국영식품회사(PDVAL) 등과 관련된 부패 혐의자들을 체포 및 처벌하는 것으로 당내 급진파의 불만을 달랬다.⁵⁾

5) 마두로의 부패 척결 노력으로 베네수엘라의 투명성 지수 세계 순위는 2012년 168위에서 2013년 160위로 조금 올랐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투명성 지수는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이티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The Economist 2013.08.10.).

한편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두로의 급진적 행보는 한계를 드러낸다. 마두로는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에는 전 부통령 호세 비센테 랑헬(José Vicente Rangel)과 같이 야당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을 요구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마두로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당내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변화과정에 있어서 마두로는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Ellner 2013b, 47).

마두로는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서 차베스주의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차베스주의의 핵심적 인물들인 군 출신의 카베요나 국영석유회사 PDVSA의 사장이자 에너지 석유부 장관인 전문 관료 출신의 라파엘 라미레스(Rafael Ramírez)와 같은 인물들과의 연합을 피할 수 없다. 이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마두로는 그의 급진적 수사와 실천을 완화하고 경제적 모델과 개인권리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실용적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Kornblith 2013, 57).

4) 마두로 정부의 경제적 난관

현재 베네수엘라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50%를 넘어서는 인플레이션과 생필품 부족 문제이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환율을 통제한 결과 빅맥지수로 볼 때 볼리바르화는 약 40% 정도 과대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베네수엘라의 시장 환율은 정부 공식 환율의 거의 6배에 거대되고 있다.

마두로 정부 첫 해에는 석유산업 투자 확대로 외국자본 유입이 많이 증가했지만(2012년 8억 달러에서 2013년 32억 달러)⁶⁾ 과도한 자본 유출로 인해 자본수지 적자가 확대됨으로써(2012년 120억 달러, 2013년 152억 달러), 무역수지 나이가 경상

6) 2013년 수치는 예상치

수지의 지속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는 2012년 대비 27%나 감소했다(2012년 299억 달러에서 2013년 218억 달러). 이는 2004년 9월 이래 최저 수준이다. 외환보유고의 80%를 차지하는 금 가격의 하락 또한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 어쨌든 베네수엘라가 2013년 10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달러 현금은 불과 45억 달러로 이는 베네수엘라의 한 달 치 상품 수입액 정도에 불과하다(CEPAL 2014).

또한 베네수엘라의 단기 채무는 180억 달러로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채무의 비중이 거의 85%에 달한다. 50%~60% 수준이 위험구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베네수엘라의 국제금리가 2012년 5월 10%대에서 2013년 12월 15%까지 상승했고, 시장 환율이 2012년 말 달러 당 17.5볼리바르에서 2013년 12월 64볼리바르까지 치솟은 이유도 바로 베네수엘라 경제의 이런 불안을 반영한다(Egan 2013).

물론 베네수엘라는 회계처리되지 않는 불투명한 기금 약 200억 달러를 따로 보유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신용대출 50억 달러와 장기투자 150억 달러를 약속받고 있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디폴트에 빠지거나 붕괴될 위험은 높지 않다(The Economist 2013.09.28.).

그러나 문제는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달러에 대한 접근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볼리바르화의 평가절하가 답이지만 물가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마두로 정부는 환율 유지와 안정을 선택했다. 그를 위해 마두로는 2013년 10월 환율의 유연화를 지지했던 당시 재무장관이자 경제 부통령이었던 넬슨 메렌테스(Nelson Merentes)에게서 경제부통령직을 박탈하고 그 자리를 환율안정을 지지했던 에너지 석유부 장관인 라파엘 라미레스에게 넘겼다. 또한 2014년 1월에도 마두로는 베네수엘라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환율유지에 자신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환율안정 유지를 재확인했다. 그 일

환으로 메렌테스를 재무장관에서 중앙은행 총재로 보내고, 반면 라미레스는 경제부통령과 에너지 석유부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했다.

생필품 부족 문제에 있어서도 마두로 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는 생필품 부족의 원인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기업들의 음모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공장을 점거하는 방식으로 생필품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마두로 정부의 이러한 대응 방식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마두로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지금과 같이 차베스의 경제 모델을 유지한다면 경제 상황은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베스의 모델을 포기한다면 그는 차베스주의 급진과 사회그룹들에 의해 개혁주의자,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차베스주의 내부의 노선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마두로 정부는 겉으로는 급진적으로 혁명 기치를 높이 들겠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러운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면서 차베스주의 사회그룹의 지지도 공고히 할 수 있는 묘수를 찾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5) 마두로 정부의 중간 평가

2013년 12월 지방선거는 마두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녔다. 마두로 정부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자본가들에 의한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지 4% 정도가 정부의 음모론을 그대로 믿는다는 여론조사도 있다(The Economist 2013.09.28.).

낮은 성장률, 높은 물가상승률, 생필품 부족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마두로의 인기는 하락했다. 심지어 차베스주의자 내부에서도 마두로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했다. 그에 대해 마두로는 지지율 만회를 위해 소매가격을 강제로 인하하고,

공장을 점거하는 등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다.

그 결과 선거는 도시지역에서 야당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마두로의 정치권력을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야권 민주통합회의(Mesa de la Unidad Democrática: MUD)는 베네수엘라 두 번째 도시 마라카이보를 비롯해 23개 주의 수도 중 7 곳에서 시장직을 차지했다. 이 중에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다섯 개의 대도시 중 4개가 포함된다. 하지만 여당인 PSUV는 농촌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획득했다. 그 결과 PSUV는 총 337개의 시장직 중 76%를 차지했고, MUD는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카라카스의 구 도심을 포함하는 서부 지역의 리베르타도르 시 구역을 지켜낸 것도 PSUV의 성과였다. 총 득표율에 있어서도 PSUV는 49%를 득표해 MUD의 43%보다 6% 정도 앞섰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의 1.5% 차이에 비하면 오히려 차이가 더 커졌다(Dominguez 2013).

4. 결론을 대신하여: 향후 전망

2013년 지방선거의 결과는 이번 선거를 마두로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물고 가려고 했던 야당의 의도를 무산시켰다. 대선 이후 야당의 지지율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반면 마두로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는 여전하다. 마두로 정부는 다음 선거인 2015년 총선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가 절하도 단행하는 등 실용적 접근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거나 사회적 불안이 지속되는 경우 마두로 정부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전적으로 야당과 미국에 돌림으로써 반대세력을 힘으로 억압하고 급진적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최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시위는 오히려 차베스주의의 단합을 가져와 마두로의 급진적 정책들을 오히려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다. 경제문제에 있어서 무력했던 따라서 차베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을 야기했던 마두로 정부는 오히려 이번 시위를 통해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볼리바르혁명의 방어에 뜻을 같이하는 군부가 마두로 정부에 대한 굳건한 지지 세력으로 남아있는 한 시위로 인해 마두로 정부가 퇴진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참고문헌

- 김기현. 2013. 「주요지표를 통한 차베스 집권 14년의 평가」, 『중남미연구』 32(3): 151-187.
- 세바스티안 에드워즈. 2012. 『포퓰리즘의 거짓약속. 라틴아메리카 회망에서 좌절의 대륙으로』, 서울: 살림.
- Banco Mundial. 2013. *Indicadores: Salud, Tasa de Mortalidad, Bebés*.
<http://datos.bancomundial.org/indicador>
- CEPAL. 2004.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3*.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 2007.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6*.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 2010.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 2012. *Anuario Estadíst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2*.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 2013.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2*.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EPAL. 2014. *Balance Preliminar de las Economías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3*. Santiago de Chile: Naciones Unidas.
- Corrales, Javier y Manuel Hidalgo. 2013. “El régimen híbrido de Hugo Chávez en transición(2009-2013).” *Desafíos* 25(1): 45~84.
- Dominguez, Francisco. 2013. “Venezuelan elections see clear victory for the PSUV led by Nicolas Maduro & their allies.” *Venezuelananalysis.com*. December 12.
<http://venezuelananalysis.com/print/10240>
- Egan, Matt. 2013. “Strong-arm policies leave Venezuela teetering on the brink of collapse.” *FaxBusiness*. February 17.
- Ellner, Steve. 2013a. “Social and Political Diversity and the Democratic Road to Change in Venezue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40(3): 63~82.
- Ellner, Steve. 2013b. “Just how radical is president Nicolás Maduro.”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46(2): 45~49.
- Isacson, Adam. 2013. “Where does the Venezuelan Military Stand?” *Just the Facts*. January 3.
<http://just.org/blog/2013/01/13>

- Kornblith, Miriam. 2013. "Chavismo after Chávez?" *Journal of Democracy* 24(3): 47~61.
- Latinobarómetro. 2011. *Informe 2011*. Santiago de Chile: Corporación Latinobarómetro.
- Parenti, Christian. 2005. "Hugo Chávez and Petro Populism." *The Nation* 280(14): 15~21.
- Silva, Mario y Aramis Palacios. 2013. "Transcripción de la conversación de Mario Silva y Aramis Palacios."
<http://noticiasclic.com/images/2013Mayo/TRANSRIPCION.pdf>
- The Economist. 2013. "Now for the reckoning." *The Economist*. May 9.
- The Economist. 2013. "Venezuela's election aftermath. Cry havoc." *The Economist*. May 11.
- The Economist. 2013. "Corruption in Venezuela. The billion-dollar fraud." *The Economist*. August 10.
- The Economist. 2013. "Maduro's balancing act." *The Economist*. September 28.
- The Economist. 2013. "Venezuela's economic war. Everything must go." *The Economist*. November 16.